

아름다운 교황님 방문 4박 5일을 기록한 서울주보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2014년 새해가 되고 얼마 뒤 교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추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교회 내에서 조심스럽게 퍼졌습니다.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89년 서울 세계 성체대회로 방한한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경사가 될 터였습니다.

소박하고 격식에 덜 얽매인 자유로운 새 교황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국내의 교회 소식란도 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정과 메시지 등으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교황청은 2014년 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교황님의 방문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식과 대전교구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8월 중순은 보통 교황님의 여름휴가 기간인데 휴가 대신 한국 방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황님의 방한은 서울주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주보는 정확하고 유익한 교황 방한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특보 제작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주보팀은 교황청의 홍보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황님의 동정과 말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방한 준비위원회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신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주보 특보 1호는 4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1면에 말씀과 함께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교황님의 인상적인 사진을 실었습니다. 2~3면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2014년 4월 27일 주보 특보

추기경의 “교황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상”이란 주제로 인터뷰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추기경 서임식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소개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이지만 이미 교황님께서는 한국 방문을 결심한 상태라 전례 중 염 추기경에게 인사를 하는 짧은 외중에도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고 염 추기경도 “우리 한국인들도 교황님을 사랑한다.”라며 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면에는 교황방한준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4월 초에 있었던 전례, 홍보회의 과정과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의 부탁 말씀도 소개하고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문과 서울대교구 홍보국이 제작한 로고 발표와 해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황 방한 특보는 2014년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마다 발간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자료집 역할뿐 아니라 서울주보는 특별한 언론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6월 29일 서울주보 특보는 다른 언론에서 보기 힘든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과의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고, 8월 15일 서울주보에 게재된 염수정 추기경의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는 유명 일간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8월 31일의 특보는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사진과 메시지로 보여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사진첩이었습니다. 교황 방문을 통해 당시 서울주보의 자긍심과 책임감은 아마 최고의 상태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황 방문 특보들만으로 책을 엮으면 아마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이 출간될 것 같은 생각은 너무 과장된 생각일까요?